

윤 대통령,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오찬
빈 살만, 재계 총수들과 티타임도 가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가 17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합의했다.

양국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협력 분야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한·사우디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했다. 단독회담에 이어 공식 오찬을 함께한 뒤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수교 60주년을 맞아 모하메드 왕세자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비전2030'을 통해 사우디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는 지금이 양국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도약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양국이 ▲신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 협력 ▲네옴(NEOM)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참여 ▲방위산업 협력 ▲수소 등 미래 에너지 개발 ▲문화교류·관광 활성화 등의 협력을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모하메드 왕세자는 "에너지, 방위산업, 인프라-건설 등의 3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고 희망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에너지 분야에서는 수소에너지 개발, 탄소포집기술, 소형원자로(SMR) 개발과 원전 인력 양성 등의 협력을, 방산 분야에서는 사우디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협력을, 인프라 분야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기업들의 '비전2030' 적극 참여 등 구체적 협력 분야를 제시했다. 아울러 양 측은 협력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 간 '전략파트너십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모하메드 왕세자는 총사업비 5000억 달러(약 660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네옴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 이날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만나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건강 올레길 | 우리동네 주치의의 건강학

위암·대장암 등 정기적인 검사 필수
국가건강검진, 미루지 말고 받아야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나 의료급여수급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크게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등으로 나뉜다.

일반건강검진은 보통 2년 주기로 검사 시기가 도래하는데 주요 검진 항목은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소변검사, 혈액검사, 전문의 문진 등이다. 암검진은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시행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이 검진 항목이다. 만 40세 이상이라면 2년에 한번 위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대장암검진은 만 50세 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이다. 대장암은 위암과 더불어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암종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 실천이 필수다. 간암검진 대상은 간암 발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만 40세 이상 수검자다.

유방암검진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 주요 대상으로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이다. 자궁경부암검진은 만 2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시행한다. 또 폐암검진은 만 54~74세 이하 남녀 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저선량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실시한다.

국가건강검진은 연말에 수검자가 대거 몰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연말이 오기 전 여유롭게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강서송도병원 김철석 병원장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3년 만에 완전정상화된 게이머들의 대축제



'지스타 2022'가 열린 부산 해운대 벅스코 전경과 전시관에 마련된 시연석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는 관람객들.



사진제공 | 넥슨·넷마블

돌아온 '지스타'...신작 게임·체험 이벤트 '풍성'

43개국·987개사가 2947부스 참여
작년보다 행사 규모 2배 이상 확대
위메이드, 신작 '나이트 크로우' 소개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등 9종 선배

게이머들의 축제가 다시 시작됐다. 17일 부산 해운대구 벅스코 앞의 오전부터 게이머들로 북적였다. 3년 만에 정상화된 게임 축제 '지스타'를 즐기려는 인파였다.

게임전시회 '지스타'는 이날 벅스코에서 개막했다. 행사는 20일까지 열린다. 2005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지스타는 대한민국 대표 게임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크게 축소돼 아쉬움을 남겼다. 올해 '완전정상화'를 선언한 '지스타 2022'에는 43개국, 987개사가 2947부스로 참여했다. 제한적으로 열린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확대된 규모로, 업계 관계자들과 게이머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일반 관람객이 입장을 시작한 이날 오후부터 행사장엔 더 많은 인파가 몰렸다. 게이머들은 다양한 신작 공개와 이벤트로 팬들을 맞았다.

메인 스폰서를 맡은 위메이드는 신작 '나이트 크로우'와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영상으로 소개했다. 또 게임과 메타버스를 통해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꾸몄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의 흥행을 이을 신작

들을 소개했다. 특히 내달 2일 론칭하는 '칼리스토 프로토타입'을 출시 전 처음 체험할 수 있도록 해 관람객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넥슨은 '퍼스트 디센던트', '데브 더 다이버', '마비노기 모바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등 시연 4종을 포함해 총 9종의 게임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단일 최대규모인 총 300부스에 560여 개 시연기기를 준비한 압도적 전시관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넷마블은 '나 혼자만 레벨업', '아스달 연대기', '파라곤', '하이프스쿼드'를, 카카오게임즈는 '아레스', '가디언즈', '디스테라' 등의 신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올해 처음 확대된 제2전시장 3층 B2C관에도 여러 게임사들이 자리했다. 특히 네오위즈는 8월 독일에서 열린 '게임스

컴 2022'에서 한국 게이머 최초로 3관왕을 차지한 화제작 'P의 거짓'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인기를 모았다. 관람객들은 P의 거짓이나 칼리스토 프로토타입, 마비노기 모바일, 나 혼자만 레벨업, 가디언즈 등 기대작들을 체험하기 위해 긴 대기열을 마다하지 않았다.

올해 지스타에선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했던 야외전시 부스와 푸드트럭존을 다시 운영한다. 또 전시장 내외부 인원 분산 목적으로 야외 부대행사인 지스타 워업 스테이지가 운영된다.

한편, 지스타조직위원회는 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현장 보안 요원 배치를 늘리고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 기관의 인력 지원도 받았다.

부산 | 김경민 기자 dionys@donga.com

"와인의 기사를 아시나요"...프랑스 론와인 기사단 작위 수여식 성료

와인의 기사, 와인 통한 국제교류 앞장
프랑스 중심 5000여 명 기사들 활동
17일 송대관 등 43명 기사 작위 받아

뛰어난 무용(武勇), 성실, 명예와 약자보호, 경건함. 중세 유럽 '봉건제도의 꽃'으로 불리던 기사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규범과 행동양식이 있었다. 우리는 이를 기사도 정신이라 부른다.

갑옷을 입고 긴 창과 방패를 든 기사는 이제 존재하지 않지만 이들의 명예와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 바로 기사 작위이다. 영어권에서 남성에게 붙이는 '서(Sir)'는 원래 기사 작위를 받은 사람의 이름 앞에만 사용할 수 있는 경칭이었다. 영국에 '나이트(기사)'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슈발리에'가 있다.

●프랑스 대표 '와인 훈장'

그런데 창 대신 붉은 빛 와인잔을 손에 든 기사들이 있다. 이들은 와인을 통한 국제교류, 문화발전을 위해 전선에 나선 기사들이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5000여 명의 기사들이 작위를 받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기사단의 이름은 '프랑스 론와인 기사단'이다.

론와인 기사단은 원래 16세기 프랑스 론 지역의 와인 생산업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을 지키기 위해 '코트-뒤-론' 와인 기사단을 창설한 것이 시초이다. 현재는 전 세계에 지부를 두고 각국의 와인 산



17일 터케이호텔서울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작위를 받은 기사들. 올해 60명이 추가로 탄생해 한국 론와인 기사단은 총 380명으로 늘어났다.

사진제공 | 론와인기사단 한국지부

업발전과 홍보, 친목 및 비즈니스를 위한 단체로 발전했다.

론와인 기사단은 전 세계 0.1%만이 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명예지위이자 프랑스를 대표하는 영예로운 '와인 훈장'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수여하는 레종도뇌르 훈장의 등급과 비슷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론와인 기사단은 프랑스를 본부로 벨기에, 스위스, 독일, 캐나다, 미국, 중국 등 11개 지부가 있다. 한국지부는 세계 10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2011년 7월 21일 설립됐다. 이동현 영사(1879강남와인스쿨 이사장·와인학 박사)가 초대 단장으로 임명됐으며, 2013년 6월 29일 기사단 창립 40주년 기념식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론와인 기사단 영사 작위를 받았다.

●송대관·곽경택 등 새 기사 탄생

한국지부는 17일 터케이호텔서울 거문고홀에서 제9회 론와인 기사 작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가수 송대관, 팔란트 이영진, 변호사 한문철, 영화감독 곽경택, 성남산업단지 성명기 이사장, 매경비즈 장종희 대표, 성대 W-AMP 임봉숙 사무총장 등 총 43명이 기사 작위를 받았다.

수여식을 위해 프랑스에서 방한한 파트리 갈랑 론와인기사단 그랜드 마스터가 이동현 단장, 전익관 영사와 함께 수여식을 진행했다. 파트리 갈랑은 론와인협

회장과 프랑스 3대 와인 학교인 '위니베르시테 드 뱅'의 학장을 역임했으며 KBS 다큐멘터리 '백년의 기업'에 소개되기도 했던 '도넬 드 라프레지앙트' 와인너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탄생한 새 기사단에게는 갈랑이 직접 양조한 기념 와인 '갈랑 드 테라스 데 볼리유'가 증정됐다.

한편 18일에는 부산와인스쿨에서도 수여식이 개최돼 20명이 기사 작위를 받았다. 이동현 단장은 "오늘 새롭게 작위를 받으신 기사 분들을 축하하며 우리나라는 올해 60명이 추가돼 총 380명의 론와인 기사가 활동하게 된다. 앞으로 국내 와인산업의 발전과 국제 교류, 문화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